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관련 요인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채명옥, 김아린, 전해옥*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Related Factors of Problem Behaviors among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A Systematic Review

Myung-Ock Chae, Ahrin Kim, Hae Ok Jeon*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관련요인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한국연구정보서비스, 한국학술정보서비스와 국회전자도서관의 온라인 검색을 통해 2018년 7월 4일까지 검색된 국내문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검색어는 다문화와 문제행동 혹은 행동문제로 하였다. 그 결과, 총 2,084편이 검색되었고, 최종 21편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관련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성별, 학업 성적, 자아존중감 등), 가족적 요인(가족의 유형, 부모지지,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친구지지, 교사지지, 사회적지지)의 변수들이 관련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변수는 학교생활적응이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심리적, 사회적 적응 또는 부적응이 4편, 문제행동 또는 위험행동과 정서적 행동문제가 각각 3편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가족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중재를 통해, 문제행동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제행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론적 정의를 근거로 도구를 개발하여, 문제행동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적, 사회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literature and examine the factors related to problem behaviors among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was conducted using domestic documents retrieved through July 4, 2018 based on online searches of domestic databases (the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and the National Diet Library). A total of 2,084 studies were searched, and 21 studi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factors related to problem behaviors were related to individual factors (gender, school record, self-esteem, etc.), family factors (family type, parent support, mothers' enculturation stress, etc.) and environmental factors (friend support, teacher support, social support). The variables measured the problem behaviors among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were school life adjustment (10), psychological, social adjustment or maladjustment (4), and emotional problem behavior (3). Overall, the results indicate that social and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individual, family, and environmental factors based on more specific and consistent theoretical definitions related to problem behaviors among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eywords : Child, Culture, Family, Problem Behavior, Review

*Corresponding Author : Hae Ok Jeon(Cheongju Univ.)

Tel: +82-43-229-8993 email: beaulip@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17, 2018

Accepted December 7, 2018

Revised (1st October 22, 2018, 2nd October 29, 2018)

Published December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7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반적인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다문화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조사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년보다 10.3% 증가하였다[1]. 이 중 초등학생의 비율이 75.6%로 가장 높고, 중학생 14.6%, 고등학생 9.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한국사회 내 다문화 가정의 인구구성 비율의 증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과 사회통합의 문제를 일으키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2].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으로서 문화차이와 편견·차별로 인한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38.3%였으며, 외로움 33.6%, 자녀양육 및 교육으로 인한 어려움은 23.2%로 2012년도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다문화 가족의 30%가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3].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9.4%, 학교 폭력피해율은 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및 문화가 다르거나(18.3%), 학교공부가 어려워서(18.0%)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았다[3]. 특히, 학교에 적응 못하는 주된 이유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나[3],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학교 적응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개선해 줄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011~2016년 다문화 가정 및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결과, 주로 겪는 심리적 문제는 불안, 과잉행동, 애착 문제, 언어발달 지연, 우울 등으로 나타났다[4]. 또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75%가 학교부적응 현상을 보였고, 학교생활에서 낮은 자존감, 공격적인 성향, 반사회적인 성향, 가정환경 방지와 방임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5].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심리·정서문제 등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를 현실적으로 도와줄 아동 및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며, 결핍된 부분의 보완을 넘어서, 심리적, 정신적 건강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지체계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비행, 폭력 등 문제행동의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본인 충동성은 비행에 유의미한 영

향을 주고, 사회적 갈등요인이 높아질수록 학교적응능력과 문화 적응능력이 낮아졌고, 자기 정체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의 구조적 요인보다 기능적 요인이 비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 가정 청소년 부모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이해 수준, 부모의 양육방식, 가정의 분위기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그리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집단에서 정서·행동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7], 폭력을 경험한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 생각을 할 가능성이 약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폭력을 경험하면 우울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높아지면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갈등, 언어적 문제, 인종차별, 폭력 등에 대한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9],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지지체계 마련 만큼, 심리·정신적인 건강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보고된 다문화 가정 자녀의 문제행동 관련 연구들은 일부 문제행동과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단면적으로 비교한 연구이거나[2,6,7], 심리적 건강의 위험성 및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들로[8-9],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비교·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관련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연구의 특성, 연구의 질 평가,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전략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관련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 문제행동 관련요인 연구의 특성을 파악한다.
- 2)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 문제행동 관련요인 연구의 질 평가를 실시한다.
- 3)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선정된 연구의 한국 다문

화 가정 학생 문제행동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 문제행동 관련 변인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2.2 문헌의 선정기준 및 배제기준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기 위해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 문제행동 관련 변인은 무엇인가?’로 핵심질문을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선정기준

·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 대상 연구(participants)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 연구: 학령기 이후의 아동은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학령전기 아동에 비해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10], 또래집단과의 우정을 매우 중요시 하여 주요 행동에 있어서 친구 집단의 규범과 압력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11], 문제행동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는 공통적인 환경 특성을 갖고 있는 초·중·고등학생으로 제한하였음.

- 문제행동(problem behavior)과 행동문제(behavior problem)에 관한 연구
- 문제행동의 관련 변인에 대한 통계치를 제시한 양적 연구로, 상관계수를 제시한 연구

2) 배제기준

·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 중 특수집단에 해당하는 보호관찰 청소년(under the protective disposition) 대상 연구: 보호관찰 청소년은 이미 범법행위자이거나 범죄 가능성이 있어 지도, 상담 및 교정하기 위한 제도 하에 있으므로[12],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그 수준에 차이가 있고 관련 요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외 함.

- 발달단계 상 성인으로 분류되는 대학생 대상 연구

2.3 문헌검색과 선정

본 연구는 코크란 연합(Cochrane collaboration)의 체

계적 문헌고찰 핸드북[13] 및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의 체계적 문헌고찰 흐름도[14]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다. 문헌 검색과 선정은 2018년 7월 4일까지 검색된 모든 국내 논문 중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관련 변수에 대해 한국어로 게재된 문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한국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한국학술정보서비스(Korean 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KISS]) 및 국회전자도서관(National Assembly Digital Library)의 학술연구정보를 활용하여 문헌의 온라인 검색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Participants)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다문화 가정 학생, 결과(Outcomes)변수로 문제행동을 사전에 설정하여 문헌 탐색을 진행하였다. 논문의 유형은 학술지 게재저널과 학위논문을 모두 포함하였고, 자료검색의 검색어는 ‘다문화’ AND (‘문제행동’ OR ‘행동문제’)를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데이터 검색을 통해 RISS 1,808편, KISS 158편, 국회전자도서관 118편으로 총 2084편의 문헌이 검색되었고, 이 중 중복된 문헌 1,185편을 제외한 총 899편의 제목 및 초록을 검토하여 문제행동과 관련 없는 연구 811편, 중재연구 23편, 초·중·고등학생이 아닌 유아기 및 학령전기이거나 특정집단(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7편, 사례연구 7편, 문헌고찰 연구 1편을 제외하였다. 이후 선택된 40편의 문헌은 원문을 검토하여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생 등을 포함한 연구 8편, 문제행동과 관련 없는 연구 7편, 상관계수가 없는 연구 2편, 다문화 가정과 일반가정을 모두 포함한 상관계수만 제시한 연구 1편, 문헌고찰 1편을 제외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21편의 논문을 체계적 고찰과 질 평가 대상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선택과정의 모든 단계는 3명의 연구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세 명의 연구자가 충분히 논의하여 일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자세한 문헌 선택과정은 흐름도로 제시하였다(Fig. 1).

2.4 문헌의 질 평가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이므로, 그 목적에 맞게 체계적 문헌고찰 선행연구[15,16]에서 사용되었던 상관관계 연구의

질 평가 도구(Quality Assessment and Validity Tool for Correlational Studies)를 이용하여 최종 선정된 21편 논문의 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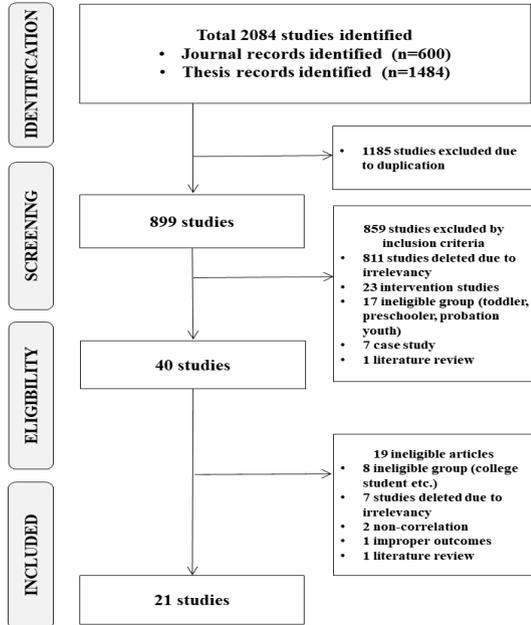


Fig. 1. Flow diagram of study screening

본 도구는 연구디자인과 통계분석에 관한 문항 각각 2개, 표본추출에 대한 문항 4개, 측정에 관한 문항 5개로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예’로 응답하는 경우 1점, ‘아니오’로 응답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하나, 측정영역에서 종속변수의 측정에 관한 문항은 자가 보고나 자기 기입인 경우 1점, 객관적 관찰인 경우 2점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였다. 총점은 0~14점의 범위, 10~14점은 논문의 질이 ‘높음(high)’, 5~9점은 ‘중간(medium)’, 0~4점은 ‘낮음(low)’으로 판단한다[15]. 문헌의 질 평가는 3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수행한 후 이견이 있는 경우 회의를 통해 조율하기로 하였는데,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

질 평가 결과 총 21편의 연구 모두 5~9점의 분포를 보이며 질적 수준이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선택된 연구 중 낮은 질 평가 수준으로 제외되는 연구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항목별 질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타당한 도구를 사용한 결과 측정과 상관관계분석 사용은 21편 모두 ‘예’에 해당하였고, 1곳 이상에서의 자료 수집과 신뢰성 있는 결과 측정은 20편이 충족하였다. 또한, 결

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자가보고식인 연구와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도구의 신뢰도가 .70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연구는 19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론적 틀이 없는 연구가 8편이었고, 대상자의 응답률이 60% 이상이 안 되는 경우가 7편이었는데, 이 중 5편은 자료 수집을 위한 배부와 수거 수, 자료 분석에 이용한 수를 정확히 기술하지 않아 ‘불명확’을 근거로 응답률 60% 이상을 묻는 문항에 ‘아니오’로 분석하였다. 질 평가 항목 중 전향적이지 않은 연구가 21편 모두였고, 확률적 표집에서 21편 모두 임의추출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익명성 보호를 하지 않은 21편과 통계분석에서의 극단치 조정이 없는 19편의 경우는 모두 명확한 기술이 없어 ‘불명확’을 근거로 ‘아니오’로 분석하였으며, 표본 수 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20편이었다(Table 1).

3. 연구결과

3.1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관련 연구의 특성

본 연구는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관련 변수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최종 선정된 21편의 연구를 대상으로 학회지 게재 여부, 대상자 수, 대상자의 학년, 문제행동 관련 변수, 문제행동 측정도구를 확인하였다. 총 21편의 논문 중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7편(33.3%)이었고, 대상자 수는 66~614명으로 다양하였다. 대상자의 학년은 초등학생이 12편(57.1%)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5편(23.8%)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측정에 사용된 도구는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가 11편(52.4%)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을 측정하는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 Adaptation to school life가 4편(19.0%)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관련 요인

최종 선정된 21편의 논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문제행동 관련 변수는 성별, 사회적 지지, 친구지지가 각각 4편으로 가장 많았고, 학년, 자아존중감, 교사지지가 각각 3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학업성적, 낙관성,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적응유연성, 가족의 유형, 부모지지,

Table 1. Summary of characteristics and quality evaluation of studies

No.	Author (yr)	Publication	Sample size	Grade of subjects	Related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scale)	Quality
1	Choi (2014) [17]	No	134	Middle & High	Mother's enculturation stress, Optimism, Self-regulation	K-CBCL (externalization (aggression), internalization(depression & anxiety))	6
2	Cui et al. (2017) [18]	Yes	320	Elementary & Middle	Father's parenting behavior (affection, reasoning, monitoring, over-control, physical abuse), Self-concept (Physical, competence, friendship), School record	School adjustment (adaptation to school life, K-CBCL (withdrawal, depression & anxiety, delinquency, aggression))	9
3	Han (2012) [19]	No	121	Elementary	Mother-children communication, Father-children communication, Ego-resiliency, Social support	School adjustment	8
4	Han (2012) [20]	Yes	166	Elementary & Middle	Sensation seeking, Positive coping strategy, Self-efficacy, Father's parenting behavior, Mother's parenting behavior, Social support, Adaptive resilience	ARQ	7
5	Han (2011) [21]	No	178	Elementary	School record, Impulse & aggression, Self-blame & avoidance, Depression & anxiety, Self-esteem, Friend support, Parent support	Adaptation to school life	7
6	Jeon (2010) [22]	No	117	Elementary & Middle	Self-identity, Appearance satisfaction, Parent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Family cohesion, Friend support, Teacher support	Adaptation to school life (interest in school, academic attitude, attitude to school norms)	7
7	Jun (2010) [23]	No	227	Middle & High	Gender, Grade, Religion, Residential district, Family type, Father' age, Father' education, Mother's education, Father' job, Mother's job	K-CBCL (withdrawal, physical symptom, depression & anxiety, social immaturity, problem of thought, concentration, delinquency, aggression, externalization, internalization)	7
8	Kang (2009) [24]	No	231	Elementary	Family support, Father support, Mother support, Friend support, Teacher support	K-CBCL (depression & anxiety, aggression, social immaturity)	7
9	Kim (2013) [25]	No	459	Elementary	Gender, Grade, Mother's job, Mother's age, Mother's education, Mother's parental stress,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K-CBCL (externalization (aggression), internalization(depression & anxiety))	7
10	Kim (2011) [26]	No	121	Elementary	Enculturation process stress, Perceived discrimination, Social support (Social support source, Social support type)	School adjustment (Adaptation to school life, K-CBCL)	8
11	Kim (2010) [27]	No	251	Elementary	Family health, Self-esteem, Damage of victimization, Coping with stress	School adjustment (teacher relationship, friend relationship, school class, school norms)	7
12	Lee (2010) [28]	Yes	143	Elementary	Individual characteristics, Familial characteristics, Peer-relational characteristics, Schoo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K-CBCL (withdrawal, depression & anxiety, delinquency, aggression)	6
13	Lee (2010) [29]	No	162	Elementary	Self-concept, Parent's communication, Social support	Adaptation to school life (interest in school, attitude to school norms)	8
14	Park (2009) [30]	No	210	Elementary & Middle	Adaptive resilience, Risk factor	K-CBCL (sociality, school performance, social competency)	6
15	Rhee (2012) [31]	Yes	210	Elementary	Mother's enculturation stress (perceived discrimination, homesick, perceived hostility, fear, culture shock, guilty, others (social isolation, inferiority, distrust)), Mother's parental stress (child care, economic problem, and work-family conflict), Family function (problem-solution activity, communication, role, emotional response, emotional involvement, behavior control, general function)	K-CBCL (externalization, internalization)	8
16	Rhee & Lee (2016) [32]	Yes	210	Middle	Mother's enculturation stress (perceived discrimination, homesick, perceived hostility, fear, culture shock, guilty, others (social isolation, inferiority, distrust))	K-CBCL (withdrawal, depression & anxiety, physical symptom, delinquency, aggression)	7
17	Shin (2010) [33]	No	154	Elementary	Mother's acculturation attitude (assimilation, separation, and Integration), Mother's marital conflict, Mother's parenting behavior	School adjustment	8
18	Sung (2010) [34]	No	614	High	Parent support, Friend support, Teacher support, Confidence, Self-control, Difficulty of task, Interpersonal relationship, Vitality, Emotional control, Curiosity, Optimism, Problem-oriented attitude, Problem solving skill	School adjustment (academic, social, environmental & general area)	9
19	Yang (2018) [35]	No	66	Elementary & Middle	Gender, Grade, Self-identity	Child problem-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 &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	5
20	Yoon (2014) [36]	Yes	160	Elementary	Novelty seeking, Harm avoidance, Sensibility, Persistence, Parent's caring, Parent's over-protection	K-CBCL	6
21	Yu & Ok (2013) [37]	Yes	346	Elementary	Gender, Family type, School record	School adjustment, Emotional regulation, Social adjustment	7

K-CBCL=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ARQ=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

Table 2. Classifica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showing significant results by domain

Domain	Factors	Number of studies (n)	Number of studies showing significant results (n)	
Individual	Demographic characteristic	Gender	4	2
		School record	3	3
		Grade	3	1
		Academic achievement	1	1
	Emotional characteristic	Self-esteem	3	3
		Adaptive resilience	2	2
		Optimism	2	2
		Self-concept	2	2
		Self-identity	2	2
		Appearance satisfaction	1	1
		Confidence	1	1
		Curiosity	1	1
		Depression & anxiety	1	1
		Ego-resiliency	1	1
		Emotional control	1	1
		Enculturation process stress	1	1
		Harm avoidance	1	1
		Impulse & aggression	1	1
		Novelty seeking	1	1
		Persistence	1	1
		Self-blame & avoidance	1	1
		Self-control	1	1
	Sensation seeking	1	1	
	Vitality	1	1	
	Self-efficacy	1	0	
	Sensibility	1	0	
Ability	Coping with stress	1	1	
	Difficulty of task	1	1	
	Positive coping strategy	1	1	
	Problem-oriented attitude	1	1	
	Problem solving skill	1	0	
Individual characteristics	1	1		
Family	Whole family	Family type	2	2
		Familial characteristics	1	1
		Family function	1	1
		Family health	1	1
		Family support	1	1
	Parent	Parent support	2	2
		Parent's communication	1	1
		Parents' positive parenting behavior	1	1
		Parents' caring	1	0
	Parents' over-protection	1	0	
	Mother	Mother's enculturation stress	3	2
		Mother's age	2	1
		Mother's parenting behavior	2	2
		Mother's education	2	2
		Mother's job	2	1
		Mother-children communication	1	1
		Mother's acculturation attitude	1	1
		Mother's marital conflict	1	1
		Mother support	1	1
		Mother's parental stress	1	1
	Mother's parental stress	1	1	
	Father	Father's parenting behavior	2	1
		Father-children communication	1	1
		Father support	1	1
	Environment	Friend support	4	4
		Social support	4	4
Teacher support		3	3	
Damage of victimization		1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1	1	
Peer-relational characteristics		1	1	
Perceived discrimination		1	1	
Residential district		1	1	
Schoo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1	1	

Table 3. Classification of problem behaviors by domain

Dependent Variables	Domain	Number of studies(n)
Problem Behaviors	School (life) adjustment	10
	Social (psychological) adaptation or maladjustment	4
	Problem behavior or risk behavior	3
	Emotional (psychological) · behavioral problem (characteristic)	3
	Emotional regulation	1
	Development outcome	1
	Sociality	1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직업,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문제행동 관련 변수로 각각 2편씩 사용되었다. 총 21편의 한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연구 중 문제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관련 요인을 개인적(인구학적 특성, 정서적 특성, 능력), 가족적(가족 전체, 부모, 어머니, 아버지), 환경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영역 중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학업성적이 3편, 성별이 2편에서 문제행동 관련 변수로 나타났고, 정서적 특성에서는 자아존중감 3편, 낙관성,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적응유연성이 각각 2편씩 문제행동 관련 변수로 확인되었다. 가족적 영역 중 가족전체에서는 가족의 유형이 2편, 부모에서는 부모지지 2편, 어머니에서는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양육행동,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각각 2편에서 문제행동 관련 변수로 나타났다. 환경적 영역에서 문제행동 관련 변수로 나타난 것은 친구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각각 4편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지지가 3편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3.3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의 분류

최종 선정된 21편의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연구에서 ‘문제행동’의 정의와 용어를 포함한 구체적인 영역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이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심리적) 적응 또는 부적응이 4편, 문제행동 또는 위험행동과 정서적(심리적) · 행동적 문제(특성)가 각각 3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정서 조절력, 발달 산물, 사회성이 각각 1편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4. 논의

본 연구는 체계적 고찰을 통해 한국 다문화자녀의 문

제행동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전략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탐색된 2,084편의 문헌 중 최종 21편의 논문이 최종 선택되었는데, 선택된 문헌에 대한 상관관계 연구에 관한 질평가 결과[15], 14점 만점에 평균 7점이며, 5~9점의 분포를 보여 모든 연구가 중간 정도 이상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를 사용하였고, 한군데 이상에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이론적 기틀이 제시된 연구가 13편으로 나타나 탐색적 수준에서부터 모형 검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에서 횡단적 연구 설계를 활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시 배부와 수거의 수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자료수집 절차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연구에서 대상자 표집 시 임의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대표성을 가진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연구 대상자의 수는 66~614명(평균 219.1명)으로 다양하였으나, 1편을 제외한 연구에서 표본 수 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면서도 대상자 및 연구자 측면에서 불필요한 자료 수집을 막기 위해 연구계획 단계부터 연구 목적, 변수의 수, 통계 분석 방법, 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본 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표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연구에서 익명성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없었는데, 본 연구 대상자의 특성 상 언어 이해나 문자 해독 등의 이유로 직접 면담을 통해 조사를 수행하거나, 부모용 도구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보고한 경우가 많았고,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연구 대상자를 확보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연구 대상자의 익명성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연구에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선택된 논문 중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약 30% 정도로, 주로 학위논문 수준에서 해당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추후연구에서는 동료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에서 연구의 질이 평가되고 검증된 연구 결과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논문은 검색 시 별도의 출판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2009년 이후에 출판되어 최근 10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다문화학생은 2007년 약 1만5천여 명에서 2017년 현재 약 11만 명에 이르는 등[1] 다문화학생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2편(57.1%),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편(23.8%)으로 상당수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의 75.6%가 초등학생인 점을 볼 때[1], 이는 인구분포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 연구대상을 ‘청소년’으로 정하고 학령기 아동을 대상자로 포함시키거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모두 포함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에 따라 문제 행동의 특성이나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발달단계별 대상자를 분명히 명시하거나, 발달단계를 명확히 구별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선택된 논문에서 제시된 문제행동의 영역은 주로 학교 적응, 사회·심리적 적응 또는 부적응, 문제행동 또는 위험행동, 정서적(심리적) 행동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행동(problem behavior)은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법과 규범의 한계를 벗어나 행하는 반사회적, 비사회적 및 심리적 부적응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38] 본 연구에서 선택된 논문들에서도 이러한 개념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포괄적 의미에서 문제행동은 개인이 속한 사회에 대한 부적응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 대상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반수 정도의 연구에서 학교 부적응을 학생의 문제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된 도구를 살펴보면, K-CBCL을 사용하여 문제행동 전반을 측정하는 연구가

11편이었고, 나머지 10편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학교 적응을 측정하였다. K-CBCL(Korea-Child Behavior Checklist)은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Achenbach가 개발한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39-40]를 오경자 등[41]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도구이다. K-CBCL는 크게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총 119개 문항으로,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 비행, 공격성, 자해/정체감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23]. 그러나 원 도구는 문항 수가 많아 도구 전체를 사용하는 연구는 일부였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필요에 따라 하위영역 일부를 선별하여 사용하거나 수정·보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학생의 문제행동 관련 변인을 크게 개인적, 가족적, 환경적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적 영역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적 및 학업성취도, 성별 등이, 정서적 특성으로는 자아개념,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 낙관성, 적응유연성 등이 관련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학교적응 유연성[21]과 학교적응력이 낮고 [18,37], 비행 행동이 증가하며[18],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내면화 및 외현화가 문제행동 경향이 높고[25], 남학생이 주의집중력[36]과 학교적응력이 낮은 것으로[37] 나타났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자녀의 23.6%가 학교공부가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고[3], 사교육 참여율도 일반 청소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3] 이들이 교육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주요 교과목 학업성취도가 일반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낮고, 다문화 가정 학생의 60점미만 분포 비율도 7.79~17.97%로 전체 학생 0.0~3.29%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에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2]. 따라서 다문화 가정 학생에서도 남학생이나 학업성적이 부진한 학생 등 취약 집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이들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정서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개념[18,29], 자아존중감[21,27], 자아정체감[22], 낙관성 [34] 및 적응유연성[30]이 높을수록 학교 및 사회적응을

잘하고, 자아존중감[25], 낙관성[17] 및 적응유연성[20]이 높을수록 문제행동 경향이 낮고, 위험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아개념과 문제행동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혼미는 공격성, 죄책감, 품행장애의 강력한 예측요인이자[43],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증가된다[44]. 청소년기의 개인적·사회적 자아정체감은 고유관계와 상호 연계되어 있고, 학교 및 대인관계를 통해 확립·발전되기 때문에[45], 다문화 가정 학생의 올바른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 교우 및 학교,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Yang [35]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오히려 정서행동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실력, 외모차이 등이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44], 청소년이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실력이나 외모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하는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인식이 오히려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초등학교의 낙관성은 정서조절을 통해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46],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은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47] 다문화 학생에게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현실을 인식하도록 돕고, 정서조절 및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긍정적 대처를 통해 문제행동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자아개념, 외적조절동기, 인지행동 조절전략 등과 같은 개인의 인지적 요인 뿐 아니라, 교사-학생 관계, 교사지원 등과 같은 사회관계적 요인이 학업적·사회적·정의적 적응유연성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48] 개인적 인지적 요인뿐만 아니라 교사 지지를 강화함으로써 취약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의 학교 부적응 및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올바른 자아개념 형성하여 긍정적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각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족적 영역에서는 가족 전체 요인으로 가족 유형이, 부모 요인으로 부모 지지가, 어머니 요인으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육행동 등이 관련 변수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지지

정도가 높고[21,34],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덜 거부적이고[33]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이며[22], 어머니의 문화적응 태도가 동화적 또는 통합적이거나, 덜 분리적일수록[33] 자녀가 학교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 가족 형태에서 사회적응력이 낮고[37], 기타 가족 형태인 경우[23],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고[23,25],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31-32] 자녀의 문제행동 경향이 높은[23] 반면, 어머니의 감시 및 통제가 높게 작용할수록 자녀가 위험행동을 적게 하는 것[20]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가 이민 청소년의 공격성과 품행장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외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며[43], 자녀의 위험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는 긍정적이고 덜 거부적이면서도 일정한 감시와 통제를 하는 양육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태도가 아버지의 태도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20],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 귀화자의 81.5%가 여성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3],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이 양육을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 특성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결혼 이민자·귀화자의 30% 이상이 중학교 졸업 이하로 교육 수준이 낮고,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의 76.8%가 학부모로서 어려움을 있다고 호소하고 있으므로[3] 다문화 가정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 및 학부모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가족 형태를 가진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다문화 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지지적이고 우호적인 양육 태도 형성을 돕고, 문화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사회적 지원 제공이 필요하다.

환경적 영역에서는 친구 지지, 교사 지지 및 사회적 지지 등이 관련 변수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친구[21-22,24,34], 교사[22,24,34] 및 사회적[19,26,29]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친구[24] 및 사회적[20] 지지정도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나 위험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문화 가정 자녀의 77.9%가 최근 1년 이내에 친구로부터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3], 다문화 가정 자녀의 차별 경험 및 또래지지 약화는 우울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49] 친구로부터의 차별 경험은 또래 지지의 약화시킴으로써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

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학령기와 청소년 시기는 또래 규범이 중요한 시기로 규범적 또래 압력이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11], 호감 증진과 긍정적 또래 압력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 간에 호혜적 상호작용이 반복될 수 있는 지지적 학교 환경을 제공하는 또래 네트워크를 구성을 고려해 수 있다[50]. 또한 교사 지지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규범 부적응이 낮다는 선행연구[51] 결과를 볼 때, 교사는 학생의 규범적 모범이 될 수 있으므로 교사의 태도와 지지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사 개인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교사에게 영향을 받는 다른 학생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위해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편견 교정 및 방지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많은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52]. 이에 다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고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 차원을 넘어 전 국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다문화 감수성 증진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학생은 수많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고, 학업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3], 일반가정 학생보다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53]. 선행연구에서 고위험 상황에 있는 취약 아동은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고위험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보호요인을 가진 아동은 문제행동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54] 문제행동과 관련된 보호요인을 강화함으로써 취약 집단인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관련 변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예방 중재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규명된 개인적, 가족적, 환경적 측면에서 보호요인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다문화 학생의 문제행동 관련 변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각 변수별로 포함된 연구의 수가 적어 기존의 결과를 양적으로 합성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추후 연구를 통해 통합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결과가 축적된 이후에 연구 결과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합성함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는 메타분석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다문화 가정 학생의 문제행동 관련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총 21편이었고,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변수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문제행동 주요 관련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문제행동의 영역으로는, 학교(생활)적응이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심리적) 적응 또는 부적응이 4편, 문제행동 또는 위험행동과 정서적(심리적)·행동적 문제(특성)가 각각 3편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문화 가정의 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예방을 위해 문제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가족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제행동의 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론적 정의를 근거로 도구를 개발하여, 문제행동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Basic statistics of education 2017*. [cited June 28, 2018] Available From: https://kess.chedi.re.kr/post/6661635?itemCode=04&menuId=m_02_04_02
- [2] I. Jang,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Delinquency Factors Depending on Sociodemographic Structure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Multicultural & Diaspora Studies*, Vol.7, pp.1-39, 2015.
- [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Survey on the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2015* [cited June 28, 2018] Available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7137>
- [4] WeFriends Aid Migrant Health Association in Korea [cited June 28, 2018] Available From: <http://www.wefriends.org/main/index.php>
- [5] H. Cheon, G. Park, "A Study on the School Life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Vol.2, No.2, pp.416 - 444, 2012.
- [6] J. Shin, "A Study on Comparative Home Environmental Factor Effect of Delinquency in Multi-cultural Youth",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Vol.11, No.2, pp.1-20, 2014.
- [7] Y. Jun, "Relationships of Self-Concept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19, No.2, pp.277-293, 2012.
- [8] R. Lee, H. L. Chang, "Relationship between Violence Victimiz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Happi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Welfare*, Vol.19, No.3, pp.109-132, 2017.
DOI: <http://dx.doi.org/10.19034/KAYW>
- [9] Y. Kim, J. Woo,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Improvement of Policy Supports for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Vol.13, pp.69-103, 2012.
- [10] T. I. Kim, H. S. Kim, Y. H. Shin, M. K. Shim, W. O. Oh. *Growth Development and Health*. 3rd ed. Paju: Gyomoon Press, 2016.
- [11] I. T. Lee, "Mediating Effect of Moral identity on the Influence of Peer Normative pressure to the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No.53, pp.21-44, 2016.
- [12] K. M. Cheong, "A Study on The Probation Experience of Adolescent Delinqu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5, No.3, pp.95-127, 2013.
- [13] J. P. T. Higgins, S. Green,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version 5.1.0, London, UK: The Cochrane Collaboration, 2011.
- [14]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PRISMA) [Internet]. London, UK: Author; 2013 [cited 2016 September 15]. Available from: <http://www.prismastatement.org/News.aspx>
- [15] G. Cummings, H. Lee, T. Macgregor, M Davey, C. Wong, L. Paul, et al. "Factors contributing to nursing leadership: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and Policy*, Vol.13, No.4, pp.240-24, 2008.
DOI: <http://dx.doi.org/10.1258/jhsrp.2008.007154>
- [16] G. Cummings, C. A. Estabrooks, "The Effects of Hospital Restructuring That Included Layoffs on Individual Nurses Who Remained Employed: A Systematic Review of Impac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Vol.23, No. 8/9, pp.8-53, 2003.
DOI: <http://dx.doi.org/10.1108/01443330310790633>
- [17] Y. R. Choi. *Impact of Mothers' Stress of Culture Adjustment and Their Adolesce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Behavior Problem : Focusing on Japanese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14.
- [18] J. H Cui, J. A. Oh, J. H. Park,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Parental Behavior and Children's Self-Perception, Psychological & Behavioral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2, No.3, pp.449-469, 2017.
DOI: <https://doi.org/10.13049/kfwa.2017.22.3.4>
- [19] H. S. Han. *The Relations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y and the Moderating of Effect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2.
- [20] S. C. Han, "Analysis of Influence Factors on Resilience of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9, No.4, pp.239-58, 2012.
- [21] K. J. Han, *A Study on School Resili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master's thesis], pp.1-89, Seoul: Hanyang University, 2011.
- [22] P. R. N. Jeon. *A Comparative Study on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Racially-Homogeneous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0.
- [23] Y. H. Jun. *Relationships and Related Variables of Self-Concept and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Gwangju: Chosun University, 2010.
- [24] S. L. Kang. *The Influence on the Psychological-Social Adaptation of Children Born in Multi-Cultural Home Concerned Family and Social Support Syst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Uiduk University, 2009.
- [25] S. H. Kim.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Mothers' Parenting Stresses on Their Children's Development Outcom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2013.
- [26] Y. M.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on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1.
- [27] S. I. Kim. *Comparison of Psychological Features Between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in General Families Regard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28] D. H. Lee, "Factors Affecting Children's Behavior Problem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5, No.3, pp.77-96, 2010.
- [29] S. V. Lee. *The Effects of Self-Concept, Parent's Communication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in Mu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10.
- [30] S. H. Park. *A Study on Resilience li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Dongshin University, 2009.
- [31] J. Y. Rhee,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Mothers' Enculturation Stress and Parental Stress on Children's Mal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Focusing on a Control Effect of Family Function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7, No.2, pp.105-125, 2012.
- [32] J. Y. Rhee, J. Y. Lee, "The Influence of Stress for Cultural Adaptation of Moth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on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3, No.2, pp.19-27, 2016.
DOI: <http://dx.doi.org/10.20496/cpew.2016.3.2.19>
- [33] J. H. Shin. *Exploring Pathwaysfrom Acculturation*

- Attitudes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 The Mediating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Parenting*. Unpublished doctoral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34] S. J. Sung.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ships of the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0.
- [35] J. H. Yang. *Analyses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motional and Behavior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2018.
- [36] K. H. Yoon, "Influence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 on Social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Non-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13, No.4, pp.431-50, 2014.
- [37] B. A. Yu, K. H. Ok,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School Adjustment, Emotional Regulation, and Socia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8, No.4, pp.511-538, 2013.
DOI: <http://dx.doi.org/10.13049/kfwa.2013.18.4.511>
- [38] H. J. Yu. *The effects of the family function and internet addiction on the problem behaviors of the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2009.
- [39] T. M. Achenbach, & Edelbrock, C.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1983.
- [40] T. M. Achenbach. Integrative guide for the 1991 CBCL/4-18, YSR, and TRF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1991.
- [41] K. J. Oh, H. R. Lee, K. Y. Hong, E. H. Ha. *Korean version of Child Behavior Checklist*. Seoul: Jungang Jeokseong Press, 1997.
- [42] B. H. Nam, Y. Y. Kim, "Study on Academic Achievement Levels of Multicultural Family Students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Vol.2, No.3, pp.19-57, 2011.
- [43] R. Finzi-Dottan, R. Bilu, P. Golubchik, "Agg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n Former Soviet Union Immigrant Adolescents: The Role of Parenting Style and Ego Identit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33, No.6, pp.918-26, 2011.
DOI: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0.12.008>
- [44] W. S. Choi, "Personal Characteristics, Ethnic Identity,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Self-Esteem, and Problem Behavior of Korean-Japanese Multicultural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7, No.2, pp.49-71, 2012.
- [45] F. Albarello, E. Crocetti, M. Rubini, "I and Us: A Longitudinal Study on the Interplay of Personal and Social Identity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7, No.4, pp.689-702, 2018.
DOI: <https://doi.org/10.1007/s10964-017-0791-4>
- [46] Y. C. Roh, H. S.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0, No.7, pp.23-44. 2013.
- [47] Y. S. Oh, K. S. Kim, "The Effects of Optimism Enhancement Program on Children's Stress Perception and Stress Coping",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13, No.4, pp.389-407, 2014.
- [48] H. S. Kim, I. S. Oh, "Exploration of Protective Factors for School Resilience in Low-Income Middle School Students: A Focus on Academic, Social, and Affective Resili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2, pp.917-933, 2012.
- [49] H. M. Kim, S. J. Won, S. H. Choi,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2, No.1, pp.117-149, 2011.
- [50] H. J. Lee, "Attitudes of Peers Toward Rejected Children: Biased Information Processing Caused by Negative Emotions and Peer Pressur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16, No.3, pp.233-260, 2017.
- [51] M. S. Jung, J. Y. Jang, H. C. Choi,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s' Norm Maladjustment: Moderating Effect of The Intention of School Dropou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1, No.4, pp.1691-1706, 2010.
- [52] K. J. Hwang, "The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onflicts in Korea - based on Analysis of Online News Articles-",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Vol.22, No.3, pp.13-29, 2015.
- [53] K. H. Yoon, "Influence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 on Social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Non-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13, No.4, pp.431-450. 2014.
- [54] S. G.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Latent Class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Children's Problem Behavior -Application of Resilience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No.50, pp.213-245, 2015.

채 명 옥(Myung-Ock Chae)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 (간호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 과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의 안전, 성장발달, 시뮬레이션교육

김 아 린(Ahrin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사)
- 201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석사)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건강, 여성건강, 건강행위, 시뮬레이션교육

전 해 옥(Hae Ok Jeon)

[정회원]



- 200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사)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석사)
- 201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만성질환, 교육 콘텐츠개발, 인터넷 기반 코칭프로그램